

대처양식 집단에 따른 꾸물거림 및 정신건강의 차이*

이동귀
연세대학교

박현주*
동국대학교

본 연구는 두 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1에서는 한국 대학생 집단(N=258)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 PF-SOC; Heppner, Cook, Wright, & Johnson, 1995)의 3요인 구조(사려형 대처, 억제형 대처, 반동형 대처양식)가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PF-SOC의 3요인 구조 모형이 한국 대학생에게도 양호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세 하위요인들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사려형 대처집단'과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의 두 가지 군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려형 대처집단이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에 비해 자존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 2에서는 먼저 예비연구로 연구 1에서 나타난 두 군집이 다른 대학생 표본(N=154)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한 결과 두 군집의 존재를 재확인하였다. 그 다음 이 두 군집이 종속변인(꾸물거림 및 정신건강 지표) 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대로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은 '사려형 대처집단'에 비해 높은 꾸물거림 수준과 더 많은 심리적 부적응을 호소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생의 대처양식을 조사할 때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가 유용한 도구임을 밝혔고, '사려형 대처집단' 및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의 존재와 이 집단들이 꾸물거림과 심리적 부적응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대처,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 군집분석, 자존감, 꾸물거림, 심리적 부적응

개인은 일상의 소소한 스트레스에서부터 심리적 위상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생활사건을 겪는다. 많은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 자체는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바꾸려는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난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이

다. 이러한 대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반응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그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처에서의 개인차와 그 결과는 심리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대처(coping)라는 개념은 20세기 초 정신분석 진영에

* 본 연구는 제 1저자에 대한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박현주,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전화 : (02) 2260-3383,

E-mail : hjpark@dongguk.edu

서 방어기제를 설명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Anna Freud(1946)는 방어기제 중 어떤 것은 다른 것에 비해 덜 병리적인 수 있다는 데 관심을 두었고, 이는 이후의 이론가들(Haan, 1963; Kroeber, 1963; Vaillant, 1971)에 의해서 방어기제를 부적응적인 것과 적응적인 것으로 구분하도록 촉진하였다. 그 결과 방어 모형(Hann, 1963; Kroeber, 1963)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핵심은 부적응적 활동은 방어기제로 그리고 적응적인 활동은 대처기제로 분류하는 것이다(Parker & Endler, 1996).

현대적인 의미의 대처에 관한 연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라는 책에서 대처과정을 상세화한 이후에 시작되었다. Lazarus와 Folkman은 대처를 “개인의 자원을 약화시키거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 내적·외적 요구들을 조절하기 위한 끊임없는 인지적·행동적 노력”(p.141)으로 정의하고 대처의 형태를 크게 문제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구분하였다. 이 두 형태의 대처와 정신건강의 관계는 이후 많은 대처 분야 연구의 주제가 되었는데(Aldwin, Folkman, Shaefer, Coyne, & Lazarus, 1980; Endler & Parker, 1990a, 1994; Parker & Endler, 1996), 먼저 문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문제 환경자체를 바꾸는 것을 포함한 문제해결 전략과 관련된 대처이며, 이에 반해 정서중심 대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에 대한 정서반응을 조절하는 것(예 : 문제와 거리를 두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기, 회피하기 등)과 관련된 대처를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문제중심 대처가 정서중심 대처보다 보다 나은 정신건강 지표와 관련된다는(Endler & Parker, 1990a, 1994; Parker & Endler, 1996; Summerfeldt & Endler, 1996; Zeidner & Saklofske, 1996). 일례로 Endler와 Parker(1990b, 1994)는 정서중심 대처가 우울, 상태불안, 특성불안 및 신경증과 정적으로 관련된 반면 문제중심 대처¹⁾는 이들 변인들과 부적 상관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1) 실제 Endler와 Parker가 사용한 용어는 ‘과제지향(task-oriented) 대처’이었지만 그 내용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문제중심 대처와 대동소이하다. 단, Endler와 Parker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정서지향(emotion-oriented) 대처에서 회피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회피지향(avoidant-oriented) 대처를 제 3의 대처양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지금껏 대처양식 혹은 대처방략²⁾을 측정하는 여러 도구가 개발되어 왔는데 몇 가지 중요한 도구의 예를 들면 (1) 대처방식 목록(The Ways of Coping Checklist : WCC, Folkman & Lazarus, 1980), (2) 대처방식 질문지(Th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 WCQ, Folkman & Lazarus, 1985), (3) 대처 질문지(COPE :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4) 다차원 대처 질문지(Multidimensional Coping Inventory : MCI, Endler & Parker, 1990b), 그리고 (5)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 PF-SOC, Heppner et al., 1995) 등이 있다. 이 척도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이중에서도 PF-SOC은 기질적인 대처양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면에서 기존 도구들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COPE(Carver et al., 1989)의 경우 문항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COPE의 한 문항은 “나는 변했거나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성장했다(I changed or grew as a person in a good way)”인데 변화나 성장이 그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중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MCI(Endler & Parker, 1990b)에 제시된 대처방식 중의 하나인 “친구를 방문한다(visit a friend)”의 경우, 실제 대인관계 갈등상황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는 경우는 접근형 대처이지만 만일 제 3의 친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문제 상황에서 회피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애매하다. WCC와 WCQ는 특정 문제 상황을 떠올리게 한 후 어떤 대처방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문항수가 너무 많고 문제중심 대처 개념에 비해 정서중심 대처에 속하는 하위 요인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하위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은 일반적이고 다른 요인은 너무 지엽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Schwarzer & Schwarzer, 1996).

다른 대처방식 척도에 비해서 PF-SOC은 여러 가지 장

2) 대처양식(coping styles)은 기질적인 성격특질을 반영하는 대처를 의미하며 대처방략(coping strategies)은 상황 가변적인 대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Endler와 Parker(1990b)가 개발한 다차원 대처질문지는 기질적인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대처양식 질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Folkman과 Lazarus(1980)가 개발한 대처방식 목록은 특정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리도록 지시한 상태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처방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지이다.

점이 있으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언급된 문항의 애매함과 관련된 문제를 배제하였고, 둘째, 주요 대처 이론가들(예 : Endler & Parker, 1990b; Lazarus & Folkman, 1984)의 개념화, 즉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의 구분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대처방식을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접근반응과 문제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회피반응의 축에서 재개념화 하였고³⁾, 셋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대처반응을 포괄하면서도 문항 수는 18문항으로 비교적 적고, 넷째, Stanton, Danoff-Burg와 Cameron 및 Ellis(1994)의 제안을 바탕으로 대처문항 자체를 구성할 때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대처반응과 부정적 스트레스 경험의 혼입효과를 배제하였고, 다섯째, 이 척도의 하위차원들(사려형, 억제형, 반동형 대처)로 이루어진 3요인 구조의 타당성과 정신건강지표를 예언할 때의 변별타당도가 입증되었다.⁴⁾

PF-SOC의 세 하위차원은 (1) 사려형 대처(reflective coping style) : 문제 상황에 대처할 때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며,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대처 양식을 의미(예 : 내가 과거에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던가를 생각한다), (2) 억제형 대처(suppressive coping style) : 문제 상황과 문제해결 활동으로 회피하려는 대처 양식(예 : 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피한다), 그리고 (3) 반동형 대처(reactive coping style) : 개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문제해결 활동을 왜곡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보이는 대처양식(예 : 행동반응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악화된다)으로 구성되며 이 중 사려형 대처는 문제해결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다른 두 하위차원은 문제해결과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Heppner et al., 1995). PF-SOC의 하위차원들은 다양한 정신건강지표와 관련되었다. 예를 들어, 억제형 대처 및 반동형 대처

는 우울과 각각 .37 및 .44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Wei, Heppner, Russell, & Young, 2006) 삶의 만족도와는 둘 다 -.35의 상관을 보였다(Chang et al., 2007). 반면에 사려형 대처는 삶의 만족도와 .21의 정적 상관을 그리고 심리증상과는 -.26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Chang et al., 2007). 또한 사려형 대처의 부족은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유의한 기제이고(Lopez, Mauricio, Gormley, Simko, & Berger, 2001) 억제형 대처 및 반동형 대처 점수를 관찰변수로 한 부적응적 대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연결되는 경로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Wei et al., 2006). 이러한 경험적 결과들은 PF-SOC의 세 하위 차원들이 정신건강지표의 유의한 예언 변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PF-SOC으로 측정되는 대처양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PF-SOC의 세 차원(사려형, 억제형, 반동형 대처)과 유사한 개념의 대처 차원들은 국내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김정희(1987)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WCC를 변안, 타당화하였는데, 적극적 대처방식(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은 좌절이나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방식이며 소극적 대처방식(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대처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정희와 이장호(1985)는 문제중심적 대처는 우울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 정서중심적 대처에 속하는 소망적 사고, 긴장해소, 타협 등의 대처방식은 우울한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대처방식들은 앞서 언급한 WCC의 한계, 즉 문제중심적 대처에 비해 정서중심적 대처 내에 너무 다양한 종류의 대처방식이 포함되는 문제점과 PF-SOC에서 측정하는 기질적 대처양식과는 달리 상황가변적인 대처방향을 측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점은 대처에 관한 다수의 국내 논문(이은희, 2004; 최미경, 2003; 한상철, 2001)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PF-SOC의 세 차원(사려형, 억제형, 반동형)은 일반적인 대처 구분(문제중심형, 정서중심형)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문제중심형 대처가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대처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반해 PF-SOC의 사려형 대처는 문제 상황에서 보다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인 정서중심형

3) 이 개념화, 즉 문제 상황에 접근하느냐 아니면 회피하느냐를 중심으로 대처양식 문항을 구성했기 때문에 Heppner 등(1995)은 척도의 이름을 '문제중심 대처양식(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으로 하였다.

4) 요인분석 결과 3개의 하위차원에 속하는 문항 모두가 최소 .41 이상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과 낮은 교차부하량(cross-loading)을 보였고 기존의 문제해결관련 척도(예 : 문제해결질문지, 대처양식 질문지)가 정신건강 지표를 설명하는 변량을 제거하고서도 4%~14%의 추가변량을 설명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eppner 등(1995) 논문 참조.

대처는 문제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노력을 반영하며 많은 이질적인 대처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PF-SOC의 억제형과 반동형은 문제 상황에 대한 회피와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대처양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상의 문헌개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된 PF-SOC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가 한국에서 번안,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도 PF-SOC의 세 하위차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한국에서의 대처양식 연구에 활용되지 못했다. 둘째, 기존의 PF-SOC을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대처양식의 하위차원을 밝히고 이 하위차원들과 다른 준거변인(예: 성격, 정신건강, 행동지표 등)과의 상관을 살펴보거나 혹은 이 하위차원들이 준거변인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델 검증을 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대처양식의 하위차원 점수들의 조합이 이루는 프로파일에 근거해서 실제로 어떤 대처유형을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하위집단(즉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5)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PF-SOC 대처양식 차원들에 대한 이해는 증진되었지만 이 대처양식 차원들의 특정한 조합을 사용하는 실제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개입 혹은 상담을 실시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연구로 구성되는데, 연구 1에서는 첫째, Heppner 등(1995)에 의해서 개발된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PF-SOC)의 3요인 구조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도 타당한지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때 연구가설은 ‘PF-SOC의 3요인 모형이 한국 대학생에게도 적합하게 나타날 것이다’이다. 둘째, 요인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한국판 PF-SOC 하위차원들의 프로파일 점수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집단이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집단이 자존감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군집분석 자체에 내재된 탐색적 특징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세우는 대신 탐색적인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대처집단의 특성을 구별하는 변인으로 자존감을 선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아(ego)의 통합적 기능을 반영하는 자존감이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권성호, 이정섭, 류진혜, 김태성, 1997; Rosenberg, 1965) 또한 자존감이 스트레스 대처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불안과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다양한 대처행동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예민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높은 수행능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내재된 불안을 잘 방어하기 때문이다(Greenberg et al., 1992; 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유사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도출된 군집의 존재를 반복확인(replicate)하고 이 군집들이 꾸물거림과 정신건강지표 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변인으로 먼저 꾸물거림(procrastination)6)을 선정한 이유는 대처양식의 여러 차원(예: 과제 지향, 정서 지향, 회피 지향 대처)이 지연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Flett, Blankstein, & Martin, 1995). 같은 맥락에서 대처양식은 다양한 정신건강지표(예: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강박, 적대감 등)의 예언 변인으로 밝혀졌기 때

5) 성격특질의 차원(dimension)과 성격 유형 혹은 범주(type or category)는 구별되는데, 전자는 성격의 기저에 존재하는 잠재 차원으로 연속변인(continuous variable)인데 반해 후자는 불연속 변인(discontinuous variable)이다. 따라서 한 개인은 여러 개의 성격차원 점수를 가질 수 있지만 한 성격유형 혹은 범주에만 속할 수 있다.

6) 최근의 논의(Schraw, Wadkins, & Lori, 2007)에 의하면 꾸물거림이 다차원적이고 일부 차원(인지적 효율성, 절정경험)은 적응적이고 다른 차원(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루기)은 부적응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꾸물거림 척도(General Procrastination-Student Version, Lay, 1986)는 학교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행동과 관련된 성격특질을 측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중요한 과제 수행을 정해진 기한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needlessly)” 미루는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꾸물거림은 주관적인 불편감(subjective discomfort)을 수반한다고 가정되며(Solomon & Rothblum, 1984), 따라서 어떤 과제 수행을 효과적이고 신중하게 하기위해 결정이나 행동을 계획적으로 지연하는 것과는 구별되는데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방략(strategy)으로 사용되며 주관적 불편감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꾸물거림은 부정적인 성격특질이다.

문예(Chang et al., 2007) 대처양식의 조합이 이루는 집단
의 차별적 특성을 예민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1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8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여학생이 112명(45.2%)이었고 평균 연령은 22.25세였다($SD=3.23$). 설문은 지필형 검사 형태로 수업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측정 도구

문제중심 대처양식

Hepner 등(1995)이 개발한 문제중심 대처양식 질문지(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PF-SOC)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Lee, Hepner, & Park, 2003)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모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기질적인 대처양식을 측정한다.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거의 없음, 5=거의 항상)에서 응답한다. PF-SOC은 사려형 대처(reflective coping style, 7문항), 억제형 대처(suppressive coping style, 6문항), 반동형 대처(reactive coping style, 5문항)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그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PF-SOC은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보고되었다(Hepner et al., 1995). 예를 들어, 3주 간격을 둔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65(억제형)에서 .71(반동형)의 범위를 보였고, 문항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7(사려형), .76(억제형), 그리고 .73(반동형)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사려형 .67, 억제형 .75, 반동형이 .61이었다.

7) 성별에 따라 PF-SOC의 각 하위차원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ANOVA(독립변인 성별, 종속변인 세 하위차원 점수)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Wilks' $\Lambda=.97$, $F(3, 242)=9.50$, $p>.05$.

자존감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로젠버그 자존감 검사는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술하는 5문항과 부정적인 태도를 기술하는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리커트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확실히 그렇다)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높은 점수일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문항간 내적합치도 계수의 범위는 .77~.88이었다(김민정, 이동귀, 2008; Dobson, Goudy, Keith, & Powers, 1979).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자료 분석

PF-SOC의 3요인 구조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 18문항 전체를 관찰변수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검증된 PF-SOC의 하위요인을 군집변인으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군집 간에 자존감 점수 상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SPSS 11.0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⁸⁾.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PF-SOC의 3요인 구조가 한국 대학생 표본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MOS 5.0 프로그램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은 분포의 정상성이 위배되었을 때 왜곡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Curran, West, & Finch, 1996), 정상성 검증을 위하여 PF-SOC 18문항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 모두 ± 2 이하로, 이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상분포의 기준(왜도 < 2, 첨도 < 7)에 부합하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정상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8문항으로 이루어진 3요인 구조의

8) 도출되는 군집 수에 따라 2개이면 독립표본 t검증을, 2개 이상이면 일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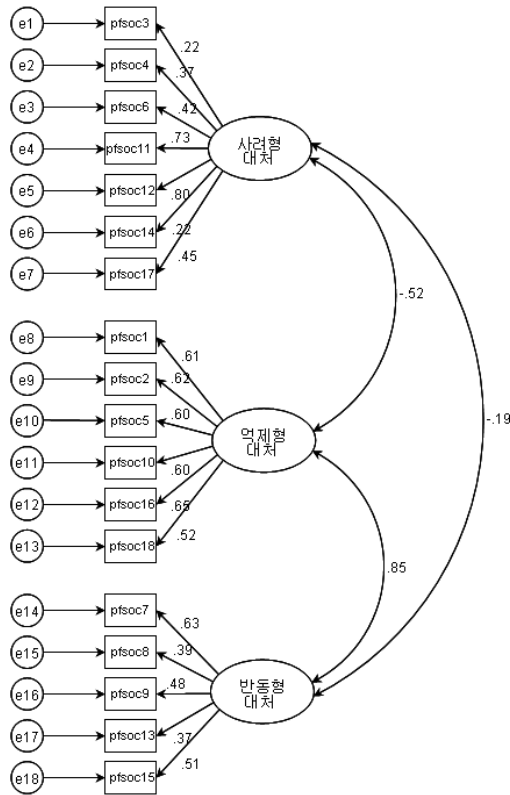


그림 1. PF-SOC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32, N=248)=225.301, p<.001, CFI=.891, TLI=.874, RMSEA=.053$ (90% 신뢰구간=.041-.065), $SRMR=.067$. 이 결과는 CFI와 TLI가 Hu와 Bentler(1995)가 제시한 기준인 .90을 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근접했고, 무엇보다 RMSEA와 SRMR이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범위(.06~.07)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3요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PF-SOC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군집분석 및 다변량 분산분석

실제로 어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F-SOC의 세 가지 대처양식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워드(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개 또는 3개 군집의 존재가 제안되었으며, 군집화 계수의 변화폭과 해석가능성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2개 군집을 채택하였다. 2단계에서는 군집의 수를 2개로 고정하여 K-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1은 147명(59.3%), 군집 2는 101명(40.7%)으로 나타났다(그림 2). 카이자승 검증 결과, 군집 1은 남자 88명(59.9%), 여자 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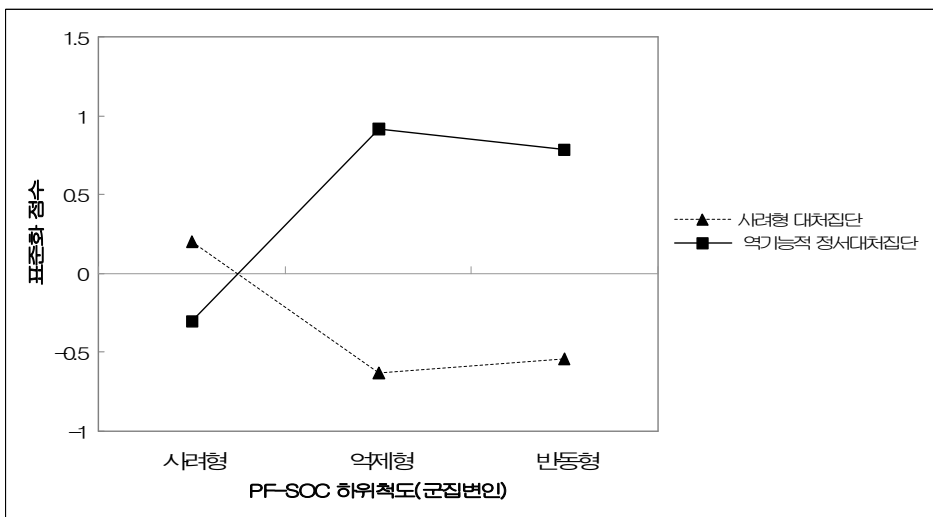


그림 2. PF-SOC 하위척도에 따른 군집

(38.8%; 2명은 성별을 보고하지 않음)으로 성별에 따라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chi^2(1, N=145)=6.63, p<.05$], 군집 2는 남자 46명(45.5%), 여자 55명(54.5%)으로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chi^2(1, N=101)=.80, p>.05$].

두 개의 군집이 PF-SOC의 세 개 하위척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Box의 동질성 검정결과 집단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므로 [$F(6, 313700.88)=9.50, p>.05$] Wilks' 람다 값을 살펴보았다.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에 대해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Wilks' $\Lambda=.34, F(3, 244)=157.20, p<.001$, 부분 $\eta^2=.66$]. 군집 1과 군집 2는 사려형 대처 [$F(1, 246)=16.32, p<.001$, 부분 $\eta^2=.06$], 억제형 대처 [$F(1, 246)=352.25, p<.001$, 부분 $\eta^2=.59$], 반동형 대처 [$F(1, 246)=157.20, p<.001$, 부분 $\eta^2=.43$]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두 군집이 자존감 점수 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군집 1($M=3.15, SD=.43$)이 군집 2($M=2.74, SD=.52$)에 비해 자존감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t(246)=6.92, p<.001$. 군집 1은 사려형 대처 점수가 평균이상이고 억제형 및 반동형 대처 점수가 평균이하 하면서 자존감 점수가 높은 특징을 보였으므로 '사려형 대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에 반해 군집 2는 사려형 대처 점수가 평균이하인 반면 억제형과 반동형 대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거의 1표준편차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자존감 점수 또한 낮았다. Heppner 등(1995)에 의하면 억제형 및 반동형 대처양식 차원은 정서중심 대처의 특성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군집 2는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으로 명명하였다(그림 2 참조).

9) 본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분은 PF-SOC의 3요인을 기초로 2개의 군집유형을 도출하는 것의 논리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며 이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한다. PF-SOC의 3요인은 문제중심 대처양식의 세 차원(dimens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성격특질로 연속 변인이며 각 차원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유형(불연속 category or subtyp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한 개인은 PF-SOC의 세 차원에 걸친 프로파일 점수로 대변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파일의 유사성과 근접성을 기준으로 몇 개의 군집(혹은 하위 유형)이 구성되는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것이 본 연구이다.

연구 2

예비연구 및 결과

먼저 연구 1과 유사하지만 다른 대학생 표본($N=154$)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와 동일한 군집분석을 실시해서 여전히 '사려형 대처집단'과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이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에 따라서 1단계에서는 워드(Wards)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2단계에서는 K-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구 1에서와 유사하게 군집화 계수의 변화폭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2개의 군집이 재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군집의 수를 2개로 고정하여 K-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1은 96명(62.3%), 군집 2는 58명(37.7%)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군집 1은 남자 59명(61.5%), 여자 37명(38.5%)으로 성별에 따라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chi^2(1, N=96)=5.04, p<.05$], 군집 2 역시 남자 39명(67.2%), 여자 19명(32.8%)으로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chi^2(1, N=58)=6.90, p<.05$]. 두 집단의 성격 역시 연구 1에서 발견된 '사려형 대처집단'과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과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대처양식의 측면에서 한국 대학생의 경우 두 가지 군집이 존재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연구 2의 본연구

예비연구에서 재확인된 두 군집이 꾸물거림과 정신건강지표 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꾸물거림과 정신건강지표는 선행 연구에서 대처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따라서 대처양식이 다른 집단의 특성을 예민하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 '사려형 대처집단'이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에 비해 자존감 점수가 유

PF-SOC의 하위차원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차원들의 프로파일로 이루어지는 군집을 조사하는 것이 유용한 이유는 심리학자들이 개입(intervention)을 할 때 특정 단일 차원의 점수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여러 차원의 조합 혹은 프로파일로 이루어진 서로 구별되는 집단(혹은 유형, 군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포괄적(comprehensive)이며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하게 높았기 때문에 지연행동의 지표인 꾸물거림 점수 및 심리적 부적응의 점수에서 유의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Solomon과 Rothblum(1984)에 의하면, 낮은 자존감은 꾸물거림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Beswick, Rothblum 및 Mann(1988)에서도 낮은 자존감은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기말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존감이 낮은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이 자존감이 높은 ‘사려형 대처집단’에 비해 꾸물거림의 정도가 더 높을 것을 예상케 한다. 아울러, 자존감은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예 : 소외감, Johnson, 1973; 불안, Leary, 1983; 외로움, Peplau & Perlman, 1982; 우울, Shaver & Brennan, 1990),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54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남학생이 98명(63.6%)이었고¹⁰⁾ 평균 연령은 21.60세였다($SD=2.35$). 설문은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온라인상에서 답변하였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소요된 시간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측정 도구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

연구 1에서 사용한 한국판 PF-SOC 척도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꾸물거림

Lay(1986)가 개발하고 Lee(2003)가 번안한 꾸물거림

척도-학생용(General Procrastination Scale-Students : GP-S)은 학생들의 지연행동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20문항으로 되어있다. 5점 리커트식 척도(1 = 매우 해당되지 않는다, 5 = 매우 해당된다)에 응답하게 되어있고 높은 점수일수록 더 높은 지연행동 수준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문항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의 범위는 .81~.89(Lay, 1988; Lay & Burns, 1991; Lee, 200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간이증상검사

Derogatis와 Melisaratos(1983)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번안한 간이증상검사(Brief Symptom Inventory : BSI)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검사 당일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5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5=자주 이렇게 느낀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9개의 하위척도(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 및 전반적인 심리증상지수(Global Severity Index : GSI)로 구성된다. Derogatis와 Spencer(1982)는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90으로 보고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의 범위는 .74(정신증)~.97(GSI)이었다.

자료 분석

예비연구에서 도출된 구 군집이 꾸물거림과 정신건강 지표 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SPSS 11.0의 MANOVA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 과

두 개의 군집이 PF-SOC의 세 개 하위척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MANOVA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Box의 동질성 검정결과 집단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므로 $[F(6, 95861.39)=6.26, p>.05]$ Wilks' 람다 값을 살펴보았다.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에 대해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Wilks' $\Lambda=.38, F(3, 150)=157.20, p<.001$, 부분 $\eta^2=.63$]. 군집 1과 군집 2는 사려형 대처 $[F(1, 152)=18.63, p<.001$, 부분 $\eta^2=.11$], 억제형 대처 $[F(1, 152)=178.19,$

10)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PF-SOC의 각 하위차원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ANOVA(독립변인 성별, 종속변인 세 하위차원 점수)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Wilk's $\Lambda=.97, F(3, 150)=.97, p>.05$.

표 1. 집단 차이 비교

	군집 1 사려형 대처집단 (n=94)		군집 2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 (n=58)		F(1, 150)
	M	SD	M	SD	
꾸물거림	61.30	10.33	65.64	9.71	6.62*
신체화	.67	.83	.76	.69	.52
강박증	1.16	.76	1.71	.79	17.90*
대인민감성	1.10	.88	1.71	.98	15.91*
우울	.85	.75	1.41	.87	17.52*
불안	.75	.83	1.13	.82	7.39*
적대감	.83	.86	1.15	.87	4.92*
공포불안	.60	.68	.93	.78	7.74*
편집증	.78	.73	1.09	.78	6.03*
정신증	.77	.68	1.33	.83	20.62*
GSI	.82	.65	1.22	.66	13.42*

주. $p < .05$, $N=152$.

$p < .001$, 부분 $\eta^2 = .54$], 반동형 대처 [$F(1, 152) = 86.05$, $p < .001$, 부분 $\eta^2 = .36$]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군집 1과 군집 2가 사려형 대처, 억제형 대처, 반동형 대처 상에서 보이는 점수 분포가 연구 1과 유사했기 때문에 군집 1은 ‘사려형 대처집단’으로 군집 2는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으로 보았다.

‘사려형 대처집단’과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이 꾸물거림과 심리적 부적응 지표 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 때 독립변인은 두 군집이었고 종속변인은 꾸물거림과 10개의 BSI 하위척도이었다. Box의 동일성 검정 결과 집단의 공분산 행렬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F(66, 47376.37) = 1.67$, $p < .01$], Mertler와 Vannatta(2005)가 제안한대로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군집에 따라서 유의한 집단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의 트레이스 = .22, $F(11, 140) = 3.55$, $p < .001$, 부분 $\eta^2 = .22$]. 종속변인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은 사려형 대처집단에 비해서 더 꾸물거리고 신체화를 제외한 총 9개 심리적 부적응 지표[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및 GSI]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질적 대처양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Heppner 등(1995)의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PF-SOC)의 3요인 구조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미국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이 도구가 문화가 다른 한국 대학생집단에서도 동일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사려형, 억제형, 반동형 대처양식의 세 하위차원이 한국대학생에게서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학생들 역시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 때로는 논리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계획하려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다른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판 PF-SOC으로 대학생의 대처양식을 측정할 때 미국판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결론이 잠정적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3요인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였지만 한국판 PF-SOC의 타당도에 대한 광범위한 추정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판 PF-SOC이 대학생의 대처양식을 연구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PF-SOC의 세 하위차원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 군집분석 결과, ‘사려형 대처집단’과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의 두 군집이 발견되었다. 이 두 집단은 자존감, 꾸물거림 및 심리적 부적응의 측면에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사려형 대처집단에 속한 한국 대학생들이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에 속한 대학생들에 비해 자존감이 더 높고, 덜 꾸물거리며, 더 나은 정신건강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대처양식 차원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서 한국대학생 집단에서 실제로 어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Costa, Somerfield 및 McCrae(1996)는 대처양식을 연구할 때 개인차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가 다양한 대처양식에 따라 정신건강이 달라지고 대처양식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개입방법을 고려할 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대처양식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차를 보이는 두 집단의 존재를 밝혔다. Costa 등의 요청에 부응했다고 할 수 있다.

대처에 관련된 기존 문헌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 왔지만(Endler & Parker, 1990b, 1994; Lazarus & Folkman, 1984) 대처 개념의 하위차원(dimension) 수준의 논의였을 뿐 실제로 어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유형(type)의 사람들의 존재와 특성에 대해 알 수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문제 혹은 과제에 대해 사려 깊은 접근을 하는 집단과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집단이 실제로 존재함을 밝혔고 더 나아가 이 집단들이 자존감, 꾸물거림 및 대부분의 심리적 부적응 지표상에서 분명한 차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약 60% 가까운 대학생이 사려형 대처집단에 속했는데 이들은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에 비해 자기에 대한 가치감 수준이 높고 학교 장면과 관련된 과제 수행에서 덜 꾸물거리며 심리적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1과 연구 2에서 약 40%의 대학생은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으로 분류되는데 낮은 자존감, 꾸물거림,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사려형 대처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 교육, 상담전문가들의 관심을 요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더 민감하고(Ellis & Lange, 1994), 과제수행시 자멸적인(self-defeating or handicapping) 변명거리를 찾기 때문에 지연행동을 빈번히 보이고(Ferrari, 1991), 스트레스에 취약하다(Summerfeldt & Endler, 1996; Zeidner & Saklofske, 1996). Peralin과 Schooler(1978)에 의하면 대처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평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요인을 바꾸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의 경우는 문제 상황을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회피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다시 문제에 대한 부적응적인 대처를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정서중심대처 과정을 고려할 때 자기기만(self-deception)의 가능성을 경계해야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정서중심대처 집단에 속한 대학생들 중 극단적인 학생들은 기한 내에 보고서를 완성해야하는 과제수행시 극도의 지연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과제수행을 지연함으로써 나중에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한 자기기만적 변명거리(예 : 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과제를 제대로 못했다)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Arkin & Baumgardner, 1985; Ferrari, 1991).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의 경우 꾸물거림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할 점은 본 연구의 군집분석에서 나타난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과 일반적으로 정서중심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정서중심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스트레스 상황의 특성이나 성격특성에 따라서 정서중심 대처가 적응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Hooker, Frazier, & Monahan, 1994; McCrae & Costa, 1986). 예를 들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적 지지를 구하는 반응을 보이며 이는 적응적이다(Hooker et al., 1994). 아울러 Worthington과 Scherer(2004)에 의하면, 정서중심대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용서(forgiveness)는 스트레스 증가 반응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다른 제한점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PF-SOC의 요인구조가 한국대학생에서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지만 다양한 준거변인과의 관련성을 통한 타당도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나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한국판 PF-SOC의 심리측정적인 속성 측면에서 볼 때도 문항간 내적 합치도 계수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신뢰도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하지 못했다. PF-SOC의 세 하위차원들이 한국 대학생집단에서도 나타난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도구가 한국 대학생들의 대처양식 전체를 포괄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북미인들과 달리 한국 대학생 혹은 한국인들 특유의 대처양식이 존재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결과는 기질적인 대처양식에 대한 것이며 상황 가변적인 대처방략에 대한 결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Bouchard, Guillemutte 및 Landry-Leger

(2004)는 상황적인 대처와 기질적인 대처를 함께 연구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고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군집분석의 결과는 표본-특정적(sample-specific)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두 군집의 존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집내의 성별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려형 대처집단의 경우 유의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는데 이것이 한국대학생들의 대처양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군집분석 자체가 탐색적인 성격의 통계기법이기 때문에 군집 수나 특징에 대한 논리적 혹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예측이라기보다는 군집분석 결과를 사후에(post-hoc) 해석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처양식에 따른 군집간의 특성비교는 가능하였지만 대처양식과 준거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검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부적응적 대처양식이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가 맞는지에 대해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분명치 않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판 PF-SOC을 대학생에게 적용함으로써 한국 대학생집단의 대처양식과 관련된 유용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대처양식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 ‘사려형 대처집단’과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의 존재 및 각 집단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특히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성이 높은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권성호, 이정섭, 류진혜, 김태성 (1997).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학생활연구*, 15, 91-119.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김민정, 이동귀 (2008). 대학생의 자존감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 승인 욕구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5(3), 289-304.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행동과학연구*, 7, 127-138.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9, 25-52.

전병재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최미경 (2003). 대학생의 자각증상과 우울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3, 433-439.

한상철 (200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 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7, 1-21.

Aldwin, C., Folkman, S., Shaefer, C., Coyne, J., & Lazarus, R. S. (1980, September). *Ways of Coping Checklist : A process measure*.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Montreal, Canada.

Arkin, R. M., & Baumgardner, A. H. (1985). Self-handicapping. In J. H. Harvey & G. Weary(Eds.), *Attributions : Basic issues and applicat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Beswick, G., Rothblum, E. D., & Mann, L. (1988).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student procrastin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23, 207-217.

Bouchard, G., Guillemette, A., & Landry-Leger, N. (2004).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coping : An examination of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cognitive appraisals, and psychological distr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221-238.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J.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 A theoretically based

-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hang, E. C., Sanna, L. J., Riley, M. M., Thornburg, A. M., Zumberg, K. M., & Edwards, M. C. (2007). Relations between problem-solving styl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young adults : Is stress a mediating variab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35-144.
- Costa, P. T., Somerfield, M. R., & McCrae, R. R. (1996). Personality and coping : A reconceptualization. In M. Zeidner & N. S. Endler(Eds.), *Handbook of coping*(pp.44-61). New York : John Wiley & Son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s Inventory :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 595-605.
- Derogatis, L. R., & Spencer, P. M. (1982). *The Brief Symptoms Inventory :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Baltimore :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 Dobson, C., Goudy, W. J., Keith, P. M., & Powers, E. (1979). Further analysis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sychological Reports*, 44, 639-641.
- Ellis, A., & Lange, A. (1994). *How to keep people from pushing your buttons*. New York : Kensington Publishing Corp.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a). *Coping Inventory for Stressful Situations(CISS) : Manual*. Toronto : Multi-Health Systems.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b).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4). Assessment of multidimensional coping : Task, emotion, and avoidant strategies. *Psychological Assessment*, 6, 50-60.
- Ferrari, J. R. (1991). Self-handicapping by procrastinators : Protecting self-esteem, social-esteem, or bo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 245-261.
- Flett, G. L., Blankstein, K. R., & Martin, T. R. (1995). Procrastination, negative self-judgments, and stress in depression and anxiety : A review and preliminary model. In J. R. Ferrari, J. R. Johnson, & W. G. McCown(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 137-167). New York : Plenum Press.
- Folkman, S., & Lazarus, R.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lkman, S., & Lazarus, R.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 A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Freud, A. (1946).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36).
-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Rosenblatt, A., Burling, J., & Lyon, D., et al. (1992). Assessing the terror management analysis of self-esteem : Converging evidence of an anxiety-buffering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13-922.
- Haan, N. (1963). Proposed model of ego functioning : Coping and defense mechanisms in relationship to IQ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 77, 1-27.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m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pp.147-205).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ppner, P. P., Cook, S. W., Wright, D. M., & Johnson, C. Jr. (1995). Progress in resolving problems : A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Journal of Coun-*

- seling Psychology*, 42, 279-293.
- Hooker, K., Frazier, L. D., & Monahan, D. J. (1994). Personality and coping among caregivers of spouses with dementia. *The Gerontologist*, 34, 386-392.
- Hu, L.,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76-99). Thousand Oaks, CA: Sage.
- Johnson, F. (1973). Alienation : Concept, term, and word. In F. Johnson(Ed.), *Alienation : Concept, term, and meanings*(pp.27-51). New York : Seminar Press.
- Kroeber, T. C. (1963). The coping functions of the ego mechanisms. In R. W. White(Ed.), *The study of lives : Essays on personality in honor of Henry A. Murray*(pp.178-189). New York : Atherton Press.
-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474-495.
- Lay, C. H. (1988). The relationship of procrastination and optimism to judgment of time to complete an essay and anticipation of setback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201-214.
- Lay, C. H., & Burns, P. (1991). Intentions and behavior in studying for an examination : The role of trait procrastination and its iteration with optimism.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605-61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Leary, M. R. (1983). *Understanding social anxiety : Social, personality and clinical perspectives*. Beverly Hills, CA : Sage.
- Lee, D-G. (2003). *A cluster of procrastination and cop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Lee, D-G., Heppner, P. P., & Park, H-J. (2003). *Procrastination and coping styl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 A validation study and cluster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Lopez, F. G., Mauricio, A. M., Gormley, B., Simko, T., & Berger, E. (2001).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cop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459-464.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 385-405.
- Mertler, C. A., & Vannatta, R. A. (2005).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s*(3rd ed.). Glendale, CA : Pyrczak Publishing.
- Parker, J. D. A., & Endler, N. S. (1996). Coping and defense : A historical overview. In M. Zeidner & N. S. Endler(Eds.), *Handbook of coping*(pp.3-23). New York : John Wiley & Sons.
- Peplau, L.,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1-20). NY : John Wiley and Sons.
- Pera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raw, G., Wadkins, T., & Lori, O. (2007). Doing the things we do : A grounded theory of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12-25.
- Schwarzer, R., & Schwarzer, C. (1996). A critical survey of coping instruments. In M. Zeidner & N. S. Endler(Eds.), *Handbook of coping*(pp.107-132). New York : John Wiley & Sons.
- Shaver, P. R., & Brennan, K. A. (1990). Measures of depression and loneliness. In J. P. Robin, P. R. Shaver, & L. S. Wrightsman(Eds.), *Measures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pp. 195-289). New York : Academic Press.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509.
-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In M.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24, pp.93-159). Orlando, FL : Academic Press.
- Stanton, A. L., Danoff-Burg, S., Cameron, C. L., & Ellis, A. P. (1994). Coping through emotional approach : Problems of conceptualization and confou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50-362.
- Summerfeldt, L. J., & Endler, N. S. (1996). Coping with emotion and psychopathology. In M. Zeidner & N. S. Endler(Eds.), *Handbook of coping*(pp.602-639). New York : John Wiley & Sons.
- Vaillant, G. E. (1971).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 107-118.
- Wei, M., Heppner, P. P., Russell, D. W., & Young, S. K. (2006).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ineffective coping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future depression :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67-79.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56-75). Newbury Park, CA : Sage.
- Worthington, E. L., & Scherer, M. (2004). Forgiveness is an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y that can reduce health risks and promote health resilience : Theory, review, and hypotheses. *Psychology and Health, 19*, 385-405.
- Zeidner, M., & Saklofske, D. (1996). Adaptive and maladaptive coping. In M. Zeidner & N. S. Endler (Eds.), *Handbook of coping*(pp.505-531). New York : John Wiley & Sons.

Clusters of Coping Styles and Their Differences in Procrast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Hyun-joo Park

Dongguk University

The current investigation with two separate studies aimed : (a)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3-factor structure of the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PF-SOC, Heppner et al., 1995), (b) to identify clusters naturally generated on the basis of the extracted dimensions of coping styles in the PF-SOC, and (c)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usters on measures of procrast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esults of Study 1 ($N = 248$) provided support for the existence of three coping styles (reflective, suppressive, and reactive) and two clusters of people (reflective-coping group and maladaptive emotion-coping group) with the former group showing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e latter. The results of Study 2 ($N = 154$) including preliminary cluster analyses revealed that the maladaptive emotion-coping group exhibited higher levels of procrastination as well as most of the indices of psychological distress (obsessive-compulsive, interpersonal sensitivity, depression, anxiety, hostility, phobic anxiety, paranoid ideation, psychoticism, and Global Severity Index),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 This study ends with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coping;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cluster analysis; self-esteem; procrastination; psychological distress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3월 5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5월 8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5월 13일